

본 사업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2013 추임새국악예술단 정기공연

‘다시 보고 싶은 그 공연’

그래! 바로 이 시간이야

2013.11.16(토) 7:00pm
민주공원 소극장

추임새국악예술단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430-7
cafe.daum.net/chuimsae

문의 : 010-3881-5404(대표)
010-5023-5599(사무장)

■ 찾아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민주공원)
전화 051-790-7400

주최·주관 : 추임새국악예술단

후원 : 부산동래민속예술보존협회,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동래아리보존회(사), 국가중요무형문화재제12호진주검무보존회, 사)부산민예총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사)민족음악원김해지부, 덕변기국악예술단, 금광엔지니어링, 조기종치과, 연지문화원

축사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
백 정 강

추임새 예술단 정기공연을 축하드리며

많은 사람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겪는다고 하는데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열성으로 사랑하며 가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문화의 뿌리를 튼튼히 지키고 가꾸며, 그 바탕위에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정열을 쏟고 있는 추임새예술단이 그러하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들의 삶속에는 알게 모르게 시대의 맥을 이어주는 전통이라는 뿌리의 문화가 스며져 있기에, 전통예술을 향유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문화의 시대를 희망으로 열어나가는 바람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것이기에 무조건 사랑하고 발전시켜야한다는 당위적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것이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곧 세계적인 유산이기에 이를 보존하고 계승해야한다는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회원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전수와 공연행사에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도근 단장님과 예술단원들이 기획한 "동래야류" 할미 영감과장공연을 비롯해 퓨전사물놀이, 무용, 상여놀이, 판굿 등 선인들의 생활 속에 녹아있던 여러 가지 형태를 다양하게 재구성한 공연내용들은 우리 민족만이 갖는 독특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한 전승보전의 필요성과 함께 내일을 위한 가치를 생각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무대는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가뭇없이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여 율해를 마무리 하고자하는 이 행사에 우리 다 같이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며 박수를 보내 주시길 않으시겠습니까?

사단법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 백 정 강

다시 보고 싶은 그 공연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추임새예술단 대표
조 도 근

기획의도

우리 고유문화인 종묘제례악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지 10년, 제주도가 자연유산에 등재, 지금은 택견과 줄타기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증명되듯 우리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그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인정받고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전통문화가 정착 우리민족에게는 그다지 환영 받지 못하고 세계의 음악눈높이에 맞춘다는 주제로 창작과 퓨전전통이 주류인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근본 뿌리를 정확히 알아야 주위의 자극적이고 수많은 외국문화 속에서 우리의 국악이 튼튼히 자리를 잡고 응용이 되지 않겠는가. 선부른 퓨전에 우리의 고유문화가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랜 세월동안 준비되어 온 것들을 보따리 풀고, 그 꾸러미마다 인정받고, 주목받아 새로운 보자기에 싸고 싶은 것이 연희자의 마음이다. 이 또한 그 연희를 보아 줄 관객의 몫도 반 이상이다. 이에 이번 판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공연 내용보다 역으로 오랜 세월 연희되거나 관심집중이 되었고 구미가 당겨 안 보고는 못 배길, '관객의 구미에 맞는 작품들을 찾고, 우리 공연들과 결합시키는 시리즈를 기획해 보고자 한다.

이번 시리즈 중 한 폭지는 아득한 향수를 일으키는 어릴 적 할매 손잡고, 머리 디밀고 보았던 것들 중 하나인 우리 부산의 자랑이자 전국 몇 안 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중 특히 재미난 집 나간 영감을 찾아 나선 할미가 등장하는 할미과장을 선보이려 한다. 동래야류의 네 과장 중 가장 발칙하게 신나는 과장으로 웃고 떠들면서 즐길 수 있으리라.

지지고 볶고 하는 우리네 삶 모두가 데 한가지라는 교훈을 담아 내고자 한다.

PROGRAM

어릴 적 그리움 담긴 울 함매 줌치에 꼭꼭 숨겨두었다 손주, 손녀 왔을 때
슬며시 끄집어 내시던 붉으레한 단감마냥 풀려나오는 신명난 얘기 보따리...

창포물에 머리 감고

무슨 할 일이 있어 나왔던가. 인생의 시작부터 푸른 청춘까지 한 여인의 깊은 삶의 절곡을 춤과 한이 어우러진 현대무용에 웅장하면서도 역동적인 국악퓨전타악 fusion samullori-KOREAN WAVE에 접목하여 풀어낸다.

시푸르데렐, 여인의 멍을 아시오

영감과 본처인 할미가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놀이판에서 만났으나 영감의 첩과 할미와의 갈등을 하여 그동안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생활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영감의 확대와 논쟁 끝에 할미가 죽고 만다.

흰 명주 수건에 꽃을 날리며

당신이 어딘가에 날마다 청정한 숲을 이루고 자천에 들 꽃으로 피었다 진들 이제 와서 내게 그 무슨 상관입니까. 벗들 먼 길을 떠나며 이제 마음을 얘기하지 않으리... 사랑으로 사랑을 벗어나고 미움으로 미움을 벗어나, 짐작 않고 이별 없이 허리를 곧추세워 다시 건강한 매무새로 푸른 삶이 돌아나기를 기다리며 흐르는 물결처럼 꽃배를 타고 싶다.

상여놀이

황천길이 멀다해도 대문밖이 저승이네

할미가 죽어 나가는 상여를 통한 놀이판이다. 우리네 장례문화가 그렇듯 하나의 축제이고 공연으로서는 유희이다. 정진화 선생이 부르는 경상도의 상여소리와 함께 관객들이 어우러져 자연스레 어울림마당으로 이어진다.

앞에 차고, 옆에 차고

잠사시오, 잠사시오, 우리백성들 잠사시오
내가 가면은 어주를 가나 아주 간다고 잊을손가
가는 나는 할 수 없이 열라왕에서 불러가니
내가 운명을 굶고 간 후 우리 동종의 여러분들
부귀의 욕망을 많이 받고 명도 받고 운도 받어서
원뿔해서 한어린 삶은 마음을 품지 말고
부귀명화를 누리놓고 한평생을 잠사시오
우리 백성 여러분들 길이길이 발전해서
잠사시오 잠사시오 내가 간 후로 잠사시오

남겨진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간다.
풍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판굿, 상쇠를 중심으로 각자의 다양한 바습새와 기락을 구성할 뿐 아니라 경상도의 가장 큰 장기인 빼어난 북습과, 눈을 땔 수 없는 12발 상모늬를까지 판굿의 구성놀이로 접목하여 아래에서 윗 늬움까지 절정의 기예를 드러내며 무대와 관객 사이의 벽을 허물고 놀아보자.

나가 놀아라

다 차려진 걸진 잔칫상에 숟가락 얹히듯이, 여차하면 풀려나올 준비되어 있던 관객의 고삐 풀린 신명과 공연 연희자들과의 신나는 한판의 굿판. 부귀의 욕망을 많이 받고 명도 받고 운도 받어서 원뿔해서 한 어린 삶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한 해의 모든 액은 물리고 씩씩한 기운으로 새해 맞이할 준비를 한다.



출연진



정영배



이순규



손인식



정진화



김익현



임도영



문종수



이치중



빈성란



손영일



김이대



정효선



류재철



정기성



민문기



류길현



박소산



최은미



조민지

정영배(연희)-국가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회장, 국가중요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전수교육조교 / 이순규(연희)-국가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전수조교 / 손인식(반주)-국가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전수장학생,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 부산시 문화재 제4호 동래지신탈기 이수자 / 정진화(연희)-국가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이수자 / 김익현(사회)-국가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이수자, 토요전통민속놀이 우리가락 우리마당 사회, 부산MBC 세상만사 MC / 임도영(연희)-국가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이수자,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 부산시민취타대 사무국장 / 문종수(연희)-국가중요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전수조교, 울산국악원 사무총장 / 이치중(반주)-사)세울전통타악진흥회 김해지회장 / 빈성란(살풀이)-부산여자대학 무용학과 졸업, 국가문화재 제12호 전주검무 이수자, 빈성란무용단 대표 / 손영일(현대무용)-July DanceTheater 대표 / 김이대(연희)-국가중요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전수장학생, 추임새국악예술단 객원 단원 / 정효선(반주)-진주시립관현악단 단원, 짙은소리쟁이 단원 / 류재철(타악)-국가문화재 제11-1호 전주삼천포농악 이수자 / 정기성(타악)-풍물굿패 배구 대표, 국가문화재 제18호 양태육류 지도학생 이수자, 추임새국악예술단 객원 단원 / 민문기(타악)-달서다사12차전국보존회 단원, 풍물굿패 배구 대표, 추임새국악예술단 객원 단원 / 류길현(타악)-달서다사12차전국보존회 단원, 추임새국악예술단 객원 단원 / 박소산(연술)-부산시문화재 제3호 동래학술 이수자, 부산연지문화원 원장 / 최은미(타악)-추임새국악예술단 객원 단원, 안성바우덕이 농악경연대의 국무총리상, 12회 전국국악대전 사물놀이부문 대상 / 조민지(태평소)-국가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전수자,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재학, 추임새국악예술단 단원

2013 추임새예술단 정기공연 '다시 보고 싶은 그 공연'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공연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 공연
다대포해수욕장 낙조분수대 개막제 축하공연
부산문화재단 용두산공원 우리가락우리마당
김해가락문화재 사물놀이공연
부산북구 와석골축제 초청공연
용두산공원 토요상설공연
부산해운대 그랜드호텔 공연

2012 추임새예술단 정기공연 '영혼의 소리' - 제2회 낙동강축제 초청공연
와석골 문화축제 초청공연
부산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부산문화재단 용두산 일
조선통신사 평화의 북소리
부산문화재단 달리는 부산

2011 추임새 정기공연 '영혼의 소리, 품에 안다' - 부산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육성사업 선정
용두산 일요상설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
제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공연 참가
전국체전 초청공연

2010 추임새예술단 정기공연 '미소를 나누는 동행' - 부산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육성사업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나눔사업 선정 전국순회공연 10회
국립부산국악원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화요공감무대 '국악향으로 봄꽃처럼' 공연
부산문화재단 용두산 일요상설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
부산문화재단 조선통신사 평화의 북소리 참가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계절문화나눔 사업

